

## 特 殊 圖 書 館 雜 談

李 俊 永

(韓國產業銀行圖書室)

圖書館界에 從事한지 七年이 經過하였다. 이동안 얼마쯤은 圖書館에 對한 認識 批判 評價를 直接 體驗하였다. 그러나 原來가 圖書館에 關하여 淺學菲才하고, 工夫를 기울리하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부터 矛盾된 일이나 編輯者의 依賴에 依하여 順序없이 執筆하니 笑覽하기바란다.

圖書館의 種類를 利用對象別로 보면 公共圖書館(國立·私立·公立)과 特殊圖書館(教育機關, 國家及地方行政機關, 學術研究, 情報, 特殊施設등에 屬하는것)으로 나누어 진다. 公共圖書館은 모든 사람이 利用할 權利를 가지고 圖書館은 無料公開되는 原則에 依하여 運營된다. 그 利用階層이 擴大하기 때문에 活動分野도 넓다. 國立圖書館은 國政 學術 産業을 對象으로 其他一般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의 全住民을 對象으로 運營된다. 利用對象이 限定되는 特殊한 機能의 圖書館은 많은 目的으로 利用된다. 學校圖書館은 學習活動에 密着해서 有機的인 運營으로 教育效果를 높이고 大學圖書館은 學生의 學習과 研究外 教授들의 研究活動을 爲하여 資料를 提供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 國家나 地方行政機關의 圖書館은 그 司法行政을 도우고, 學術研究機關의 圖書館은 研究調査에 重要한 資料源의 役割을 擔當하고 이것을 專門圖書館이라 稱한다. 其他 機關 또는 進歩的인 企業體內에 있어서 어떠한 形態로던지 圖書館을 가지게된 實業圖書館 金融圖書館 病院 矯導所 盲人을 爲한 點字文庫 新聞社의 調査部等이 限定된 利用者에게 奉仕하는 圖書館이 特殊圖書館이라 한다. 特殊圖書館은 特殊한 專門資料를 蒐集 整理하고 特殊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特殊한 利用者를 對象으로해서 組織된 施設이다. 要는 特殊圖書館이란 特殊한 集書를 가진 以外에 가장 새롭고 利用價値가 높고 살아서 움직일수 있는 資料를 품어 이들 資料가 熟達한 特殊專門職員의 管理와 運營下에서 每日의 業務가 그 目的에 副應하여 效果的인 道具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單只 特殊한 專門書를 買入하는 것 만으로 特殊圖書館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特殊圖書館이란 特色은 特殊專門의 司書를 먼저 採用해야 한

다는 것을 喝破하고 싶다. 1965年 3月現在 우리나라의 特殊圖書館 實態를 보면 71個의 特殊圖書館中 專門職員이 採用되어 圖書館이 管理運營되고 있는 곳이 28個 圖書館뿐이다. 反面, 藏書數에 있어도 2萬卷以上을 所藏한곳이 10個處뿐이고 其他는 5百卷에서 2萬卷未滿의 藏書를 가진 圖書館이다. 圖書館의 生命은 收藏하는 圖書館資料의 量에 있을뿐 아니라 이것을 가장 有効히 活用하는 圖書館職員의 質에 있는 것이다. 勿論 圖書館 管理 運營에는 職員, 施設, 資料等 圖書館의 基本條件이 必要하며 充分한 豫算의 뒷받침 없이 運營되는 일은 不可能할 것이다. 28個 圖書館에 나마 專門職員이 採用되어 있다는 事實은 特殊圖書館에도 崩芽에 새싹이 트는 感이 있다. 特殊圖書館이라 하면서 形式的으로 設備되어 있을뿐 그 本來의 設置精神에 따라 活潑한 圖書館活動을 繼續하고 있는 곳이란 몇곳을 除外하고는 殆半이 閉店休業의 狀態에 있을 것이 分明하다. 公共圖書館의 模倣에 끝이고 있는 그 原因으로 생각되는 根本問題는 財政力의 薄弱 文化的 貧困 地域社會, 對象人의 圖書館事業에 對한 認識不足等 많은 理由를 들수 있으나 現實的인 問題로서는 該當圖書館의 長이 이에 對한 認識의 缺陷이 問題일 것이고 圖書館의 目的과 그 意義 運營方法 資料의 整理 管理의 技術 奉仕의 目標 그 方法 所謂 圖書館學的 經營知識의 缺乏한것 多少는 있으나 適確치 못하다든지 部分的으로 알아도 綜合的知識을 갖지 않은 것이 큰 問題일 것이다. 單的으로 말하면 特殊圖書館에서 專門的인 司書가 全然 없는 곳이 많고 있더라도 一人專門的인 司書가 있는 곳이 많은데 起因한다. 圖書館學科 正規 코스를 修了하였다든지 實務者講習會를 受講하였다 하여 動的이고 多角的이고 奉仕的인 運營과 管理가 있으리라 速斷하기 어렵다. 圖書館이 專門職員이 없이 運營됨은 自動車가 運轉手 없이 前進하려는 것과 같으며 非專門職員에 依하여 運營되는 곳은 마치 免許없는 運轉手가 自動車を 運轉하는 것과 같이 大端히 危險千萬한 일이고 司書를 가지지 않은 圖書館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特殊圖書館의 司書는 藏書에 生命을

주고 이것을 成長시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되기 爲하여 必要하다. 特殊圖書館의 司書는 모든 問題를 研究者의 立場에서 注意하고 問題解決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資料를 미리 모든 方面에서 蒐集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地域社會에 있는 모든 圖書館이 各各 特殊한 分野에 對하여 專門化하고 特殊化하고 職能化해서 相互 가장 効果적이고 能率적인 協力體制를 組織化할수 있다면 現代의 모든 問題는 때를 놓치지 않고 解決할수 있는 情報를 얻게 될 것이다. 特殊圖書館에 使命이 여기에 있다. 1963年 10月 28日 字圖書館法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과 같이 特殊圖書館도 漸次 軌道에 오르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法으로 規定된 特殊圖書館問題를 볼 때 圖書館法第 4條(特殊圖書館에 對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이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設立者의 意圖에 따라 必要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을 自由로써 갖추면 된다. 特殊圖書館도 急速한 發展의 틀을 마련하고 啓蒙에 成功하도록 非常한 勇氣와 努力으로 充實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안다. 또한 特殊圖書館의 環境이 非圖書館의 環境에서 脫皮하려면 該當 經營主의 今後의 努力이 要請될 뿐 아니라 周圍사람들에 對한 啓蒙은 經營主뿐만 아니라 널리 圖書館員 全般의 協力이 必要하다. 1965年度 韓國圖書館協會發行 “韓國의 圖書館”에서 特殊圖書館一覽表를 볼때 아직 協會에 未加入된 圖書館이 많이 있고 71個 特殊 圖書館中 28個處만이 專門職員이 있으니 寒心한 일로 안다. 圖書館學의 經營知識을 沒理解하는 經營者가 文化의 센터인 圖書館의 本質을 把握치 못하고 原價計算 金融 市場 經濟問題에 迅速適確한 最新의 情報를 어디서 얻어 事業의 築業을 期待할 것인지 反省을 促求할 뿐이다. 圖書館學과 因緣이 먼 專門的 敎養知識 經驗과 技術이 없는 非專門職員에 맡겨져 運營되고 있다는 事實은 危險한 일이고 이 危險을 除去하기 爲하여는 그 運營을 擔當할 專門職員을 採用함으로써 살아있는 圖書館으로 活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特殊圖書館의 畸型的인 現象일 것이다. 그러니 特殊圖書館의 職員은 그 專門分野에 높은 知能을 가지고 專門文獻에 강한 關心을 갖고 넓은 視野와 豐富한 組織力을 갖추고 本質적인 것과 本質적인 것이 아닌것을 區別하는 銳利한 判斷力이 있고 知性이 있고 時間과 努力을 超越하여 活動할수 있는 訓練을 쌓아 單只職場的 壓氣樓나 形式的인 附屬物이 아닌 十分活動할수 있는 圖書館이 되도록 全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現實은 公共圖書館 施設을 標榜

할뿐 살아서 움직이는 圖書館이 되기까지는 아직 前途가 瞭遠한 感이 있다.

經營者나 利用者나 모두 反省하는 것이 民主的 運營上 重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特殊圖書館 經營者에 呼訴하고 싶은 것은 元來 圖書館事業은 設立當初부터 充分히 研究檢討하여 技術發揮에 合理化를 期할수 있는 方法을 採擇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안다. 特殊圖書館의 實例를 들어 보자 어느 企業體內에 附設된 圖書室 擔當職員이 筆者를 訪問코 放置된 圖書資料를 整理하기 爲하여 經驗있는 司書를 臨時雇用하고 整理에 着手할 것을 相識한 일이 있다. 月數千원에 賃賃을 붙여 알바이트에 짜구러로 팔리는 司書의 立場도 同業人으로 同情도 되지만 앞으로는 司書職의 職位向上을 爲하여 그 位置를 鞏固히 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안다. 全體적으로 보아 先進 諸國에 比較하면 大端히 뒤떨어진 것이고 規模도 몇개의 圖書館을 除外하고는 今後 發展에 期待하기 어려운 狀態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特殊圖書館의 將來에 關하여 이것은 韓國人全體의 良識에 걸려있는 問題이며 圖書館人이 이것에 對한 바른 認識과 理解와 그 努力과 提携와 援護가 今後 如何한 形態로 特殊圖書館에 注入되는가가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모든 惡條件下에 있는 特殊圖書館으로서 今後 要求되는 것은 바른 目標과 信念의 確立과 適確한 技術의 實施 堅實한 奉仕의 遂行 公平한 社會認識의 昂揚일 것이다. 現代의 特殊圖書館의 實現이 꿈이 아닐진대 그때에 비로서 韓國民族의 自立性의 誇示가 높이 불리워질 것이다. 無限한 對象에 對하여 有限한 戰爭을 하고있는 特殊圖書館은 겨우 지금 빛을 發見하고 있다. 그러나 그 前途는 多望하지만 또한 多難하며 當分間은 險路가 繼續된다는 것을 特殊圖書館에 從事하는 司書는 비장한 覺悟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特殊圖書館도 움직이는 圖書館이 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圖書館이 되려면 움직이는 條件이 保障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것은 먼저 機構와 사람의 問題이고 이것에 附隨되어 施設도 充實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公共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이 不斷히 全般的인 對象人에게 讀書活動에 對한 奉仕를 目標로해서 運營되고 있는데 對하여 特殊圖書館도 特定分野에 關한 調查研究에 必要한 資料를 될수 있는대로 迅速히 提供할 수 있도록 整理를 親切히 滿足하게 하여 주는 것이 그 目標일 것이다. 이런 點에 있어 現在 우리나라의 特殊圖書館은 兒童期의 成長段階에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創設된 以後 여러해가 經過한 곳이라도 成人期에 達하였다는 圖書館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故로 現在 우리나라의 特殊圖書館에서 從事하는 司書는 刻薄한 生活環境에서

그들의 責任으로서 經營主를 說得하고 對象人에게 圖書館을 利用시키는 일에 많은 思考와 時間을 갖는 일에 負擔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圖書館의 職員은 全體의 奉仕者이다. 公共의 福利나 企業의 繁榮을 爲하여 公僕 이라는데 틀림이 없다. 地域社會 全體에 奉仕하는 圖書館職員은 對外活動하는데 不偏不黨으로 中立性を 堅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地域社會의 對象人은 圖書館이라는 하나의 社會의 멤버라고 할 수 있다. 既往에 封建的이었던 圖書館이 恒常 對象人과 密接한 接觸을 가지는 方法이 講究되지 않으면 圖書館職員은 그 義務를 充分히 完遂하지 못할 것이고 對外活動없이 行하여지는 것은 獨善이다. 對外活動에 依하여 對象人의 理解를 얻고 信用을 얻어 對象人의 支持를 받으므로 圖書館의 存在가 許容되며 特殊 圖書館의 發展이 期待되는 것이다. 圖書館에 對하여 充分한 知識을 가지고 또한 讀者와 親한 友人을 가지고 任하는 職員의 參考業務活動을 通해서 讀者의 利用에 引導되지 않는다면은 圖書館은 그 責任을 다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즐겁게 圖書館奉仕에 挺身하는 圖書館職員의 손에 依하여 圖書와 讀者가 融合一體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圖書館이 存在하는 것이다. 圖書館職員이 讀者를 爲하여 奉仕하는 結果로서 그날에 處理할 일이 遲延한다든지 停頓한다든지 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圖書館業務의 時間을 節約하기 爲하여는 그 事務를 處理하는 方法이 標準化되어 이것을 簡素化함으로써 그 利益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圖書資料가 그의 讀者를 發見하고 그의 손에 圖書資料가 넘겨지는 機會가 增加할 것이고 모든 作業이 成功하기 爲하여는 時間, 忍耐力, 그리고 持續力과 信念이 必要한 것이다. 圖書館職員의 節約된 時間을 可能한 限 參考事務에 돌리는 것이 奉仕面으로 볼 때 많은 效果와 能率을 올리게 됨은 틀림없이 을 것이다. 現在의 圖書館 實體로 보아 解放後 20餘年 韓國의 圖書館運動이 繼續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圖書館이 比較的 時間의 餘裕가 있는 有閑人이나 學生生徒를 爲하여 占有되고 그리고 試驗期가 가까우면 寒風을 마즈며 館外에 列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學校圖書館이 旺盛해졌다고 하는 現在에도 이 現象은 繼續되고 있다. 特殊圖書館에 있어서도 對象人이 거의 局限되어 있지 않은지? 筆者가 스포츠맨이라 팀웍을 大端히 重要視하고 있다. 公共 圖書館이나 其他 圖書館과 달리 特殊圖書館이라는 特殊性때문인지 施設 職員이외에 많은 境遇 일에 意慾은 있어도 自己의 힘을 充分히 發揮하고 있는 곳이 드물 줄 안다. 이 어려운 일을 擔當한 特殊圖書館職員은 對象人에 對하는 應接態度가 親切하여야 되겠다. 讀者에게

주는 印象이나 影響은 物的要素보다 辟 큰 것이다. 圖書館全職員의 圓滑하고 좋은 雰圍氣는 팀웍에 依하여 만드러지고 淨化되고 強化되어 가는 것이다. 職員間의 關係가 圓滑을 缺하고 步調가 맞지 않으면 이것이 特殊圖書館活動의 盲點이라 하겠다. 어떠한 運動팀이나 監督과 選手가 있으며 監督은 作戰을 짜고 選手는 自己 位置를 지키면서 全體에 協力한다. 選手가 各自의 行動을 하는 것은 許容치 않으며 이것은 選手로서 恥辱이다. 어떠한 緻密한 作戰計劃을 세웠더라도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形勢가 一變할 수도 있으니 監督은 이것에 對應하기 爲하여 適當한 措置를 講究해서 效果를 올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籠球競技에 있어서와 같이 選手를 交代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래서 팀 全體를 어떠한 選手 한 사람이 安心하고 베스트를 다 할수 있는 狀態와 組織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最後의 勝負가 決定될 때까지 決코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逆轉이 있고 奇跡이 이러나는 일도 있다. 特殊圖書館 運營에는 統一성과 計劃性 持續性 忍耐力가 重要하다고 보겠다. 아직까지 特殊圖書館이 不振하였던 理由를 들면 圖書館에 對한 機關의 長이 理解가 缺如되었든지 經費의 不適正 組織과 機構도 不備하여 圖書館을 運營할만한 餘裕가 없고 또한 專門職員이 없고 있더라도 優秀한 職員을 맞을 수 없고 特別 圖書館의 職員各自의 自覺과 努力들이 缺乏되어 있는 點도 있다. 地域社會가 얼마간에 理解를 한다 하더라도 特殊圖書館이 成人期에 達하기까지에는 數年의 時間이 要하게 될 것이다. 過去의 圖書館專門職員은 그 時間의 大部分을 圖書館技術 즉 圖書館組織이나 圖書館의 技術 또는 分類·目錄에 沒頭할뿐 일에 精魂을 다 할수가 없었다. 겨우 오늘날 先輩의 開拓者의 苦心이 結實을 보아 技術의 方法의 基礎도 安定에 가까워진 것 같기도하며 財政的 餘裕는 아직 充分치 못하더라도 圖書館이 手段에서 目的으로 技術의 研究에의 理想의 實理로 轉換하는 時期에 到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遺憾이지만 率直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特殊圖書館의 後進性を 認定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或은 이것은 依然히 舊習을 脫皮치 못하였다고 批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特殊圖書館의 管理運營이나 對外活動도 屈指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할지 모른다. 著者는 部分的으로는 이와같은 主張을 肯定하면서도 우리의 先輩들 가운데 높은 圖書館奉仕의 理念에서 이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勞苦의 뒤를 따를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새로운 感激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先輩들의 뒤를 따라 더욱 創意와 熱意로서 새로운 特殊圖書館의 領域의 開拓에 奮起하는 勇氣 있는 專門職員이 많이 排出되길 待望한다.